

2023

# SEOUL OFFICE TENANTS PROFILE

CUSHMAN & WAKEFIELD  
RESEARCH



CUSHMAN &  
WAKEFIELD



# CONTENTS

1 견고한 서울 오피스 시장

2 권역별 오피스 임차인 분석

3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



2023

SEOUL OFFICE  
TENANTS PROFILE

1 견고한 서울 오피스 시장





견고한  
국내 경제성장률로 인한  
오피스 수요 유지



스쳐 지나간  
재택근무



양질의 오피스 선호로  
업그레이드 이전  
수요 증가



신규 오피스  
공급 부족



## 1. 견고한 국내 경제성장률로 인한 오피스 수요 유지

- 한국은 지난 10년간 주요국 대비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경제성장률 감소폭은 주요국 대비 낮았으며, 그 이후 빠른 회복탄력성을 보임
- 주요 경제기구들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견고한 높은 수준임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 침체로 최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도시의 공실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반면, 국내 오피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오피스 임차 수요로 인해 2022년 3분기부터 연 2%대의 공실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오피스 수요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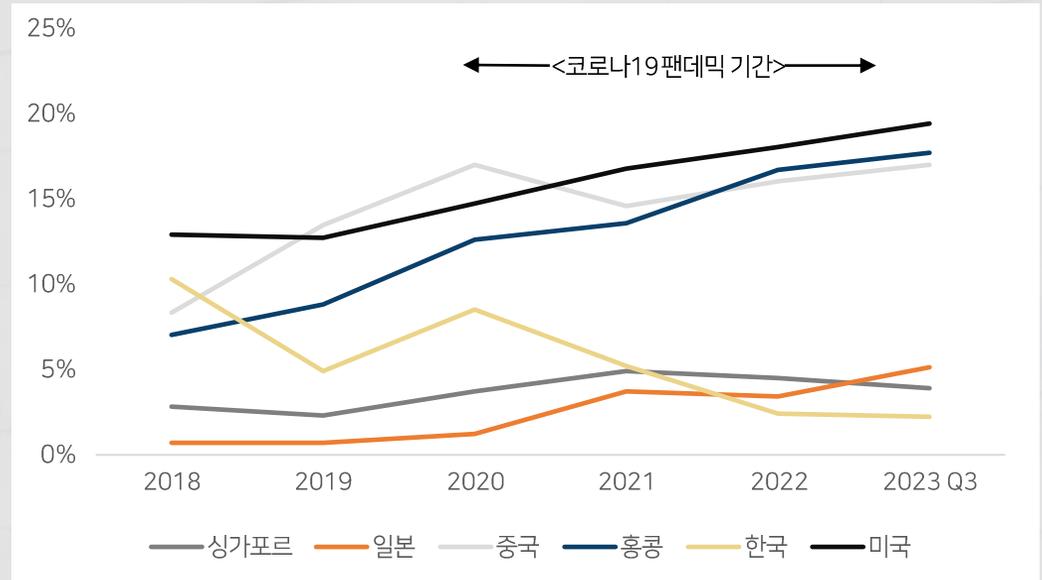
주요국 GDP 성장률

(단위: %)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F)
미국	2.2	-2.8	5.9	2.1	2.1	1.5
영국	2.0	-11.0	7.6	4.1	0.5	0.6
독일	2.0	-3.8	3.2	1.8	-0.5	0.9
호주	2.6	-1.8	5.2	3.7	1.8	1.2
일본	1.2	-4.2	2.2	1.0	2.0	1.0
<b>한국</b>	<b>3.3</b>	<b>-0.7</b>	<b>4.3</b>	<b>2.6</b>	<b>1.4</b>	<b>2.2</b>

출처: IMF

주요국 오피스 공실률 비교



출처: Cushman & Wakefield Research



## 2. 스쳐 지나간 재택근무

- 코로나19 이후 국내기업들은 빠르게 재택근무 형태를 도입했으나, 최근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의 주당 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오피스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 또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주거 점유면적은 영미권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로 재택근무 환경이 영미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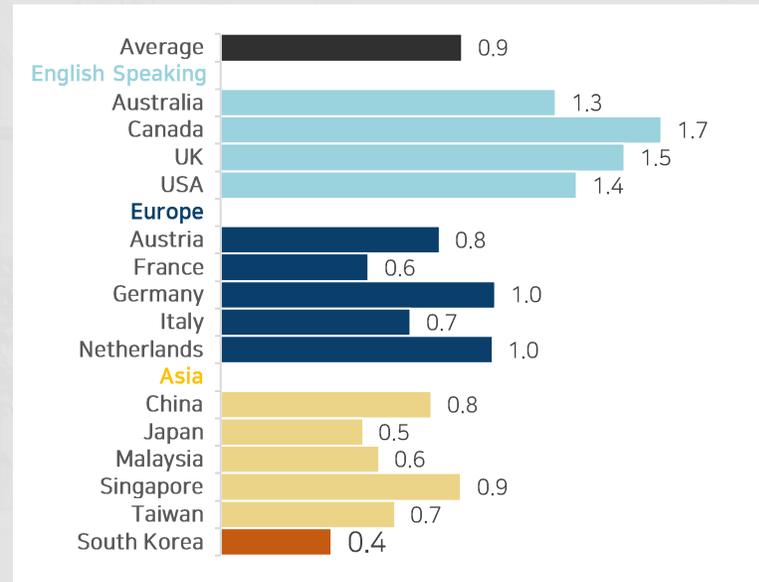
### 재택근무 축소

기업명	규모
야놀자	전면 재택근무 → 일부 재택근무로 전환
카카오	전면 재택근무 → 주 1회 재택근무 전환
SK텔레콤	전면 재택근무 → 주 1회 재택근무 전환
LG 유플러스	주 2회 → 주 1회 재택근무 축소
넥슨	재택근무 폐지
넷마블	재택근무 폐지
엔씨소프트	재택근무 폐지

출처 : IMF

### 주당 평균 재택근무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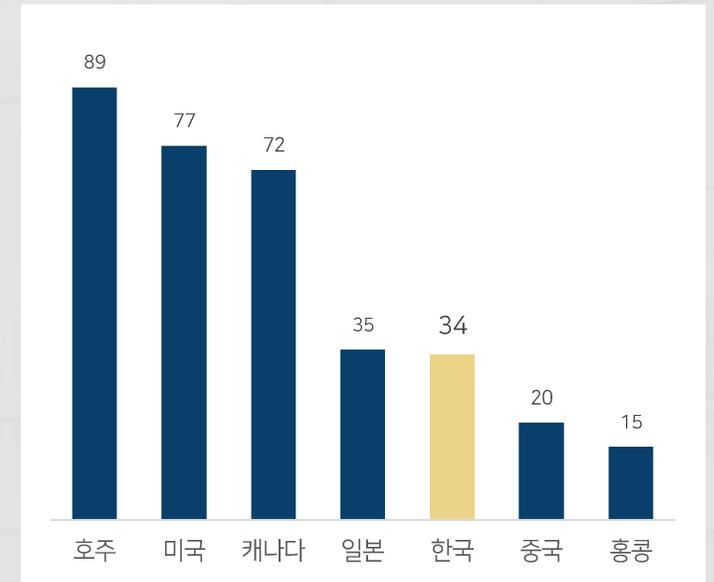
(단위 : 주당 재택근무 일)



출처 : Working from Home Around the Globe 2023 Report

### 1인당 주거 점유면적

(단위 : m<sup>2</sup>/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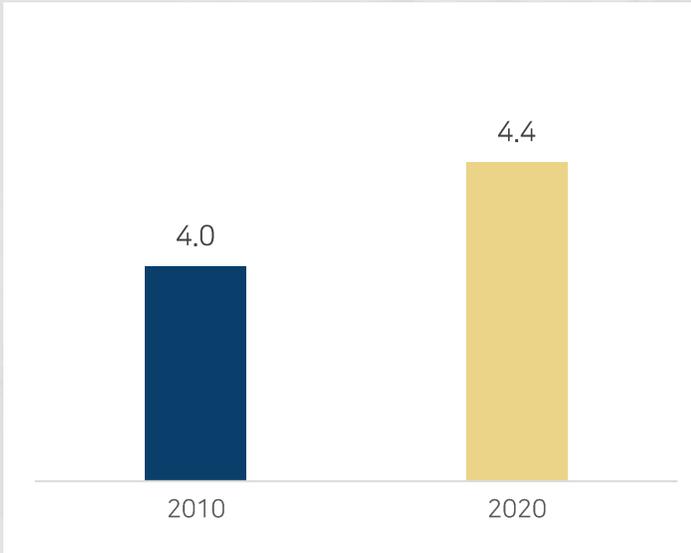
출처 : shrinkthatfootprint.com, 주거실태조사(2021)

## 3. 양질의 오피스 선호로 업그레이드 이전 수요 증가

-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넓고, 신축 및 프라임급의 건물로 이전하는 업그레이드 이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약 10% 증가했으며,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포함한 공용면적의 비중 또한 빠르게 늘어났음
- 기업들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좋은 입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넓은 바닥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로의 이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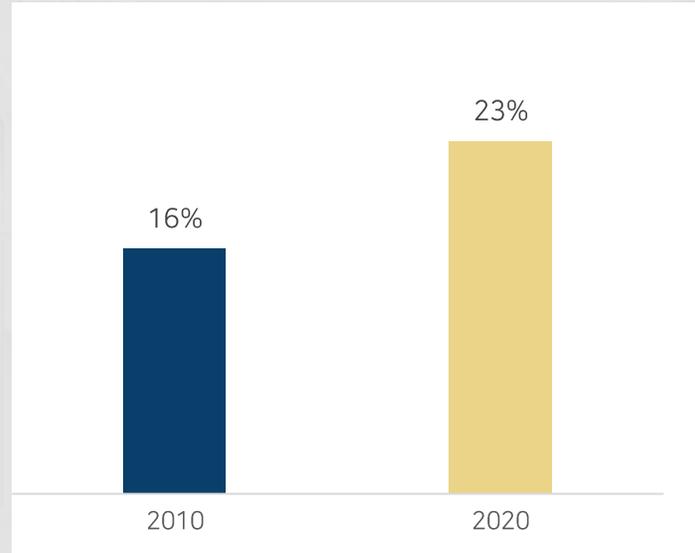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

(단위 : 평/1인)



비고 : 전용면적 기준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사무실 공용면적 비율



비고 :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외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업그레이드 오피스 이전 사례

기업명	권역	빌딩	규모(m <sup>2</sup> )
CJ 대한통운	CBD	타워8	약 18,000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CBD	센트로폴리스	약 11,000
빙그레	CBD	콘코디언	약 7,000
대한항공	CBD	한화생명 태평로빌딩	약 6,000
LIG 넥스원	GBD	롯데월드타워	약 9,000
현대제철	PBD	그레이츠판교	약 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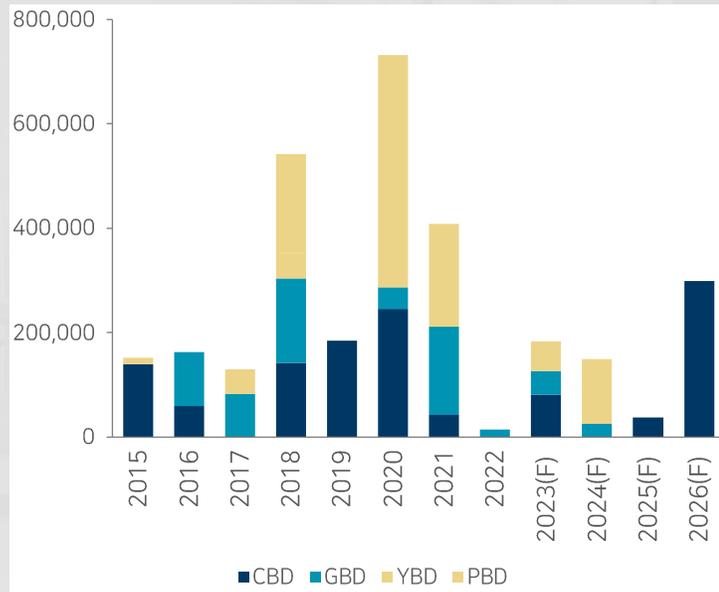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 4. 오피스 수요 대비 부족한 신규 공급

-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면적은 2022년까지 연평균 약 290,600㎡ 수준이 공급되었으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예정된 신규 공급면적은 이전의 약 1/2 수준임
- 코로나19 이후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기능 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가파른 공사비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가파른 건설공사비와 금리 상승, 안전 관련 법 강화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당초 예상 대비 신규 오피스 공급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

서울 오피스 신규 공급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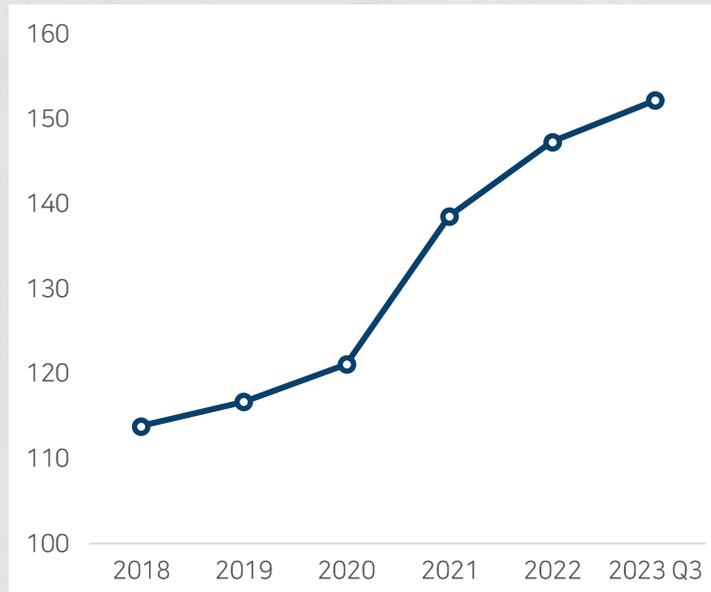
(단위 : ㎡)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비주거용 건설공사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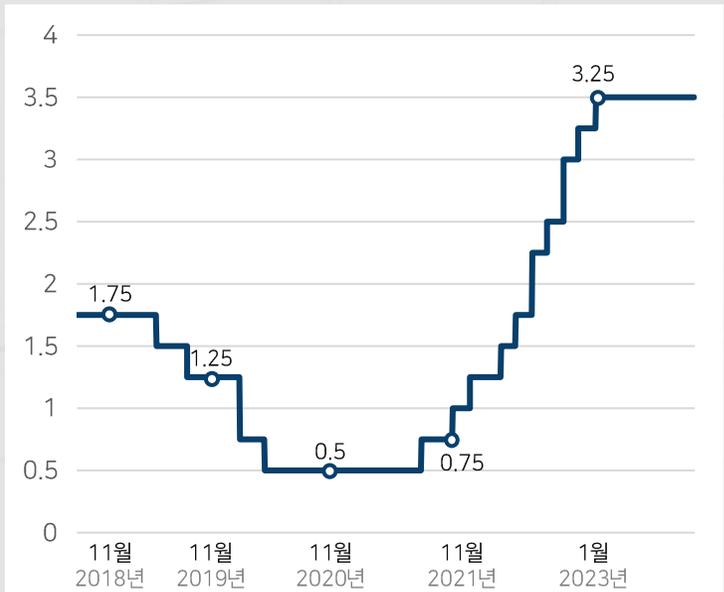
(2015=100)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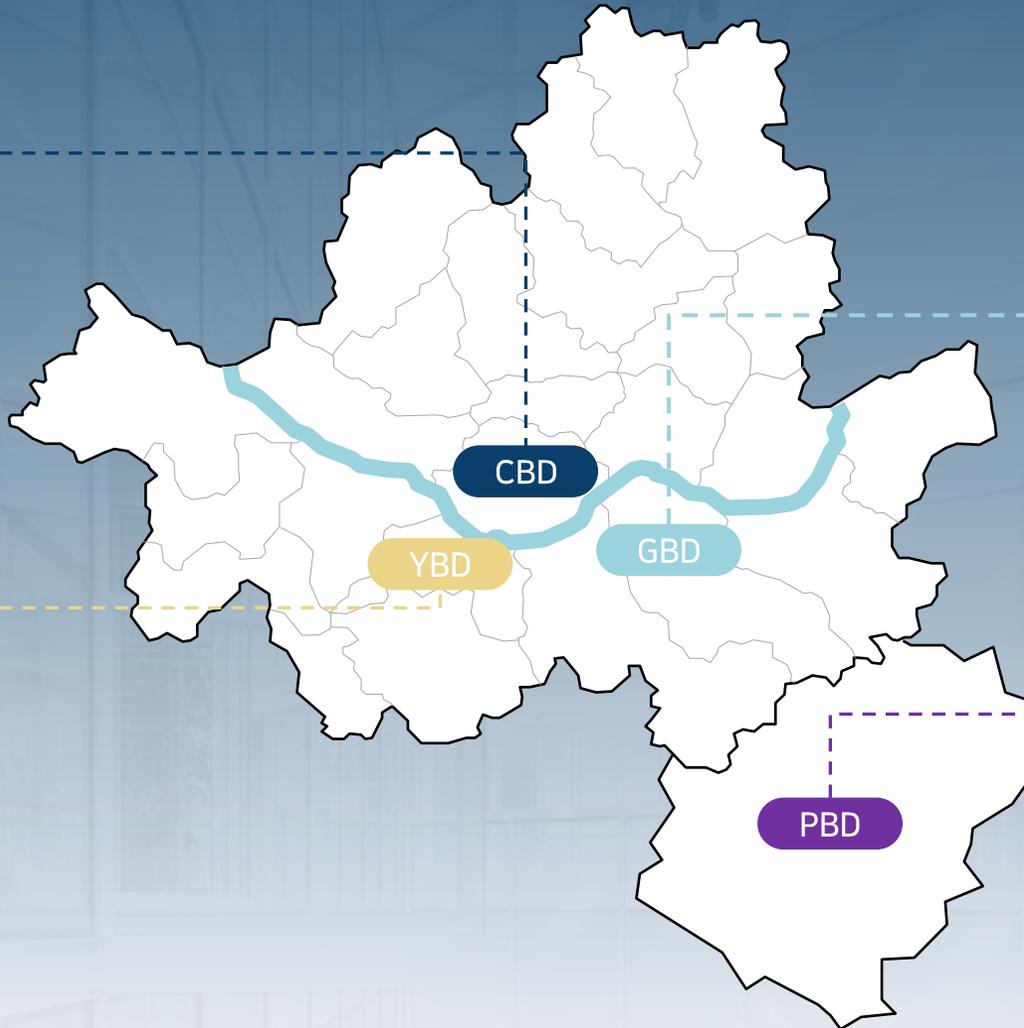


2023

# SEOUL OFFICE TENANTS PROFILE

## 2 권역별 오피스 임차인 분석

## Executive Summary



### CBD

금융	서비스	제조
31.2 % ▼ 0.5 pp	22.8 % ▲ 0.6 pp	11.4 % ▲ 0.2 pp

### YBD

금융	서비스	제조
53.7 % ▲ 0.1 pp	13.6 % ▼ 0.4 pp	9.9 % ▲ 1.0 pp

### Seoul

금융	서비스	IT
31.5 % ▼ 0.1 pp	17.5 % ▼ 0.4 pp	14.4 % ▲ 0.5 pp

### GBD

금융	도소매	IT
24.1 % ▲ 0.7 pp	18.5 % ▼ 0.5 pp	17.7 % ▲ 0.9 pp

### PBD

IT	제조	금융
68.9 % ▼ 3.9 pp	12.0 % ▲ 4.4 pp	9.4 % ▲ 1.8 pp

## Seoul

### 제조업과 IT업의 성장, 도소매업은 비중 감소

2023년 서울 및 판교권역 오피스의 임차인을 조사한 결과, 금융업-서비스업-IT업-제조업-도소매업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2022년 조사 당시 도소매보다 낮은 순위였으나, 모든 권역에서 도소매업의 규모가 축소하는 사이, 제조업은 비중은 빠르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대기업의 분사 및 계열사들이 CBD와 YBD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2022년 5위에서 2023년 4위로 순위가 올랐으며, 비중은 0.6pp 증가한 12.2%로 나타났다.

금융업은 전체의 31.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면적 축소 움직임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 및 보험사들은 면적을 증가시키면서 금융업 전체적으로는 비중이 0.1pp 감소하는데 그쳤다.

IT업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종으로 GBD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비중은 전년 대비 0.5pp 증가한 14.4%로 나타났다.

전체 오피스 면적 중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기간 상당폭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감소 폭이 1.0pp로 작아졌다. 외국계 기업이 재택근무, 자율 좌석제 등을 활발히 시행해 임차 수요가 둔화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사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했는데, 엔데믹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줄면서 외국계 기업의 임차 비중 감소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2022 2H ■ 2023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31.6 / 31.5	▼ 0.1
서비스	17.9 / 17.5	▼ 0.4
IT	13.9 / 14.4	▲ 0.5
제조	11.6 / 12.2	▲ 0.6
도소매	12.2 / 11.5	▼ 0.7
건설 및 개발	3.6 / 3.5	▼ 0.1
협회 및 공공기관	3.4 / 3.4	─ 0.0
공유오피스	3.0 / 2.9	▼ 0.1
미디어 통신	2.3 / 2.7	▲ 0.4
환경 및 에너지	0.4 / 0.4	─ 0.0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77.1 / 78.1	▲ 1.0
International	22.9 / 21.9	▼ 1.0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 Seoul

### 업종별 권역 분포 및 회전을 변화

업종별 권역 분포는 업종별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3년 조사 결과, 금융업은 CBD와 YBD에 각각 39.7%, 31.7% 위치해 있었다.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권역은 GBD로 40.9%, CBD에는 37.4%가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IT 기업의 비중은 테헤란로가 위치한 GBD에 42.6%가, PBD에는 31.5%가 위치하면서 IT업종의 강남, 판교 선호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가했다. 이 외에도 도소매업은 GBD에, 서비스와 건설 및 개발은 CBD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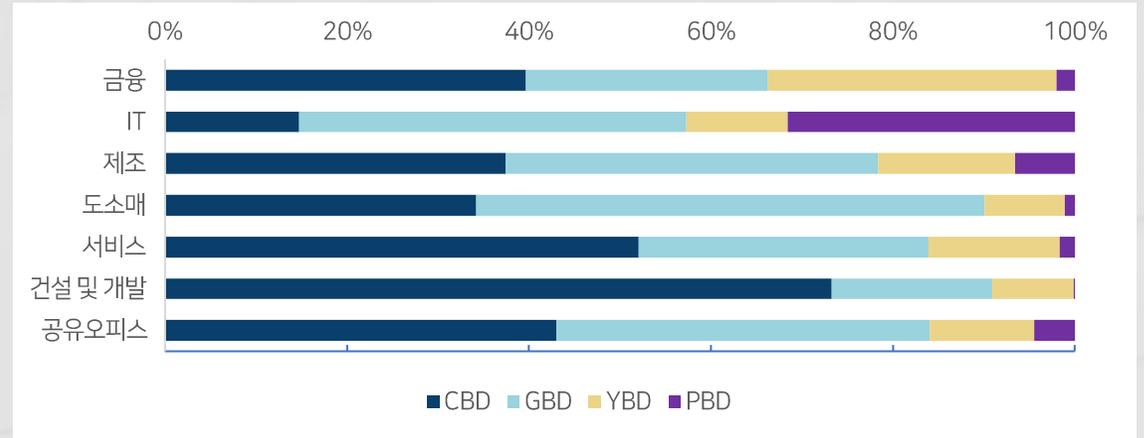
회전율은 일정 기간 내 동일 업종의 임차인이 바뀌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입 또는 퇴거했는지 흐름을 파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회전율이 낮다면 임차인의 이동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회전율이 높다면 임차인의 이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신산업과 관련한 업종들의 오피스 회전율은 높은 반면, 전통산업인 금융, 건설·개발업의 회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임대료 상승시기에서의 높은 회전율은 임대인에게 호의적인 임차인들로 변경된다는 의미를 갖지만, 임대인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의 회전율을 낮춰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선호하는 투자전략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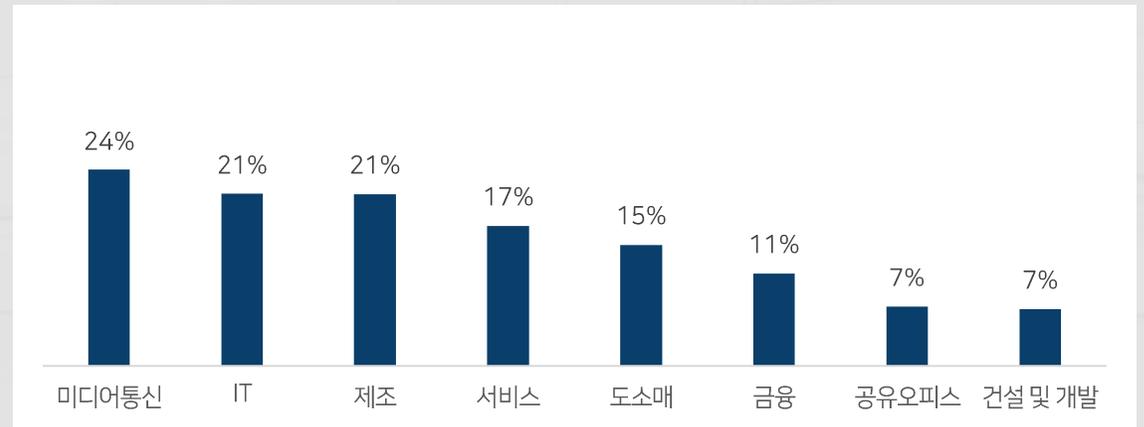
주요 업종의 분포 현황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주요 업종별 회전율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 CBD

### 서비스와 제조업은 증가, 도소매와 공유오피스업 감소

CBD에서는 서비스업, 미디어 통신,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작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던 도소매업종의 비중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CJ대한통운 본사, 대한항공 여객 사업본부의 권역 내 이전 및 주요 법무법인들의 증평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비중은 작년 대비 0.6 pp 증가해 CBD 권역 내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미디어 통신업은 CJ올리브네트웍스와 LG유플러스 등이 권역 내로 유입되면서 비중 또한 증가했다.

제조업은 대기업 본사 및 관계사들이 CBD 권역으로 이전 및 확장하면서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SK그룹의 관계사들의 증평과 빙그레 본사가 콘코디언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의 비중 증가를 이끌었다.

센트로폴리스의 주요 입주사였던 SSG닷컴이 GBD의 센터필드로 이전함에 따라 도소매업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해당 공실에 카카오펀터테이먼트가 입주하면서 IT업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공유오피스업은 퍼시스의 공유오피스와 외국계 공유오피스가 퇴거함에 따라 비중이 감소했다.

■ 2022 2H ■ 2023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31.7 / 31.2	▼ 0.5
서비스	22.2 / 22.8	▲ 0.6
제조	11.2 / 11.4	▲ 0.2
도소매	10.4 / 9.8	▼ 0.6
건설 및 개발	6.6 / 6.5	▼ 0.1
협회 및 공공기관	5.6 / 5.8	▲ 0.2
IT	5.2 / 5.3	▲ 0.1
미디어 통신	3.2 / 3.7	▲ 0.5
공유오피스	3.4 / 3.1	▼ 0.3
환경 및 에너지	0.4 / 0.5	▲ 0.1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75.0 / 75.6	▲ 0.6
International	25.0 / 24.4	▼ 0.6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 GBD

### IT 기업의 GBD 권역 내 비중 증가 계속

2023년 서울 및 분당권역의 오피스 임차인 이전 분석 결과, GBD에서는 IT 기업들의 비중이 작년 4.6 pp 상승에 이어 올해도 0.9 pp 증가하면서 타 권역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순위 또한 2022년 4위에서 2023년 3위로 올라섰다.

IT 기업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 채용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GBD로 집중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에이프로스퀘어에는 게임업체인 시프트업이 입주하였으며, 넥슨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 기업들 또한 권역 내 규모를 확장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1.3 pp 비중이 감소했는데, 보람상조개발과 포스코 계열사가 퇴거함에 따라 비중의 감소를 이끌었다.

공유오피스업의 비중은 스파크플러스와 위워크가 증평하면서 타 권역 대비 유일하게 소폭 증가했다. GBD는 공실률이 가장 낮은 권역으로 해당 권역에 오피스를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 2022 2H ■ 2023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23.4 / 24.1	▲ 0.7
도소매	19.0 / 18.5	▼ 0.5
IT	16.8 / 17.7	▲ 0.9
서비스	17.4 / 16.1	▼ 1.3
제조	14.2 / 14.3	▲ 0.1
공유오피스	3.2 / 3.4	▲ 0.2
협회 및 공공기관	2.7 / 2.5	▼ 0.2
건설 및 개발	1.9 / 1.8	▼ 0.1
미디어 통신	0.7 / 1.0	▲ 0.3
환경 및 에너지	0.7 / 0.6	▼ 0.1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72.7 / 74.5	▲ 1.8
International	27.3 / 25.5	▼ 1.8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 YBD

### 업종의 다양화 진행 중, 하지만 여전히 대표 업종은 금융업

YBD는 전통적인 금융업 중심의 권역으로 최근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기업들이 YBD로 유입되면서, 업종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BD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자산운용사, 보험사, 은행 관련 기업들의 이전 및 증평으로 인해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우 작년 이어 올해도 각각 1.0 pp 비중이 증가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Parc1, T1에 증평을 하면서 YBD 전체의 제조업 비중 증가를 이끌었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한국쓰리엠, KT 계열사 등의 면적 축소 및 퇴거로 인해 올해 여의도 권역 내에서 가장 큰 하락폭인 0.9 pp 변화를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KT여의도타워의 KT가 증평하면서 미디어 통신의 비중은 0.7 pp 증가하였다.

코로나 이후 외국계 기업들은 글로벌 본사의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확대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YBD에서만 외국계 기업의 비중이 0.4 pp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YBD 내 국내 기업 비중이 83.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국내 기업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22 2H ■ 2023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금융	53.6 / 53.7	▲ 0.1
서비스	14.0 / 13.6	▼ 0.4
제조	8.9 / 9.9	▲ 1.0
IT	8.9 / 8.7	▼ 0.2
도소매	6.3 / 5.4	▼ 0.9
미디어 통신	3.6 / 4.3	▲ 0.7
공유오피스	1.8 / 1.8	▬ 0.0
건설 및 개발	1.8 / 1.7	▼ 0.1
협회 및 공공기관	1.1 / 0.9	▼ 0.2
환경 및 에너지	0.0 / 0.0	▬ 0.0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83.8 / 83.5	▼ 0.3
International	16.1 / 16.5	▲ 0.4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 PBD

### 여전히 IT 기업들의 강세, 그리고 제조업의 증가

PBD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했던 IT업종 비중이 올해는 크게 감소해 7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IT업종의 경우 H스퀘어에 카카오브이엑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임차 면적을 확장하기도 했지만, 그레이츠판교에 네이버 계열사들이 퇴거함과 동시에, 해당 면적에 제조업 기반의 현대제철 본사가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IT업종의 비중 감소와 제조업 비중의 증가가 함께 나타났다.

다른 권역에서는 비대면 업무의 확대와 외국계 금융사들의 축소로 금융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PBD에서 카카오뱅크가 판교테크원에 임차를 확정하면서 비중은 1.8 pp 증가했다.

PBD에는 판교 알파돔시티 6-1과 6-2의 준공을 끝으로 당분간 신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권역 내 높은 IT 업종의 비중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22 2H ■ 2023 2H

Industry	Proportion(%)	GAP(pp)
IT	72.8 / 68.9	▼ 3.9
제조	7.6 / 12.0	▲ 4.4
금융	7.6 / 9.4	▲ 1.8
서비스	4.8 / 4.3	▼ 0.5
도소매	3.0 / 1.9	▼ 1.1
공유오피스	2.2 / 1.9	▼ 0.3
미디어 통신	1.5 / 1.1	▼ 0.4
환경 및 에너지	0.1 / 0.1	─ 0.0
협회 및 공공기관	0.1 / 0.1	─ 0.0
건설 및 개발	0.2 / 0.1	▼ 0.1

Classification	Proportion(%)	GAP(pp)
Domestic	95.8 / 97.3	▲ 1.5
International	4.2 / 2.7	▼ 1.5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search

2023  
**SEOUL OFFICE**  
**TENANTS PROFILE**

**3 서울 오피스 시장 전망**

서울 오피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공실률이 증가한 해외 주요 도시들과 다르게 견고한 오피스 임차 수요의 증가로 인해 오피스 공실률이 빠르게 하락했다. 최근 공사비 증가, 안전 관련 법 강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양질의 오피스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서울 오피스 시장은 올해와 같은 견고한 오피스 시장이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CBD와 GBD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을 선호하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업들은 높은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라임 오피스의 희소성과 직원들의 복지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인재 확보 등을 이유로 업그레йд 이전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최근 경영악화 및 신규 투자 감소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일부 IT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감평 움직임이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YBD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증평했던 증권사 포함 금융 관련 회사들의 수요 감소와 함께 TPE타워의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타 권역 대비 임대료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PBD는 견고한 IT 회사들의 수요와 당분간 예정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팀장, PhD  
Head of Research  
+82 10 2751 2390  
jinwoo.jung@cushwake.com

소진대리  
Assistant Research Manager  
+82 10 9186 1816  
jin.so@cushwake.com

김재준 사원  
Assistant  
+82 10 7347 1274  
bryan.kim@cushwake.com

#### About Cushman & Wakefield

Cushman & Wakefield (NYSE: CWK) is a leading global commercial real estate services firm for property owners and occupiers with approximately 52,000 employees in approximately 400 offices and 60 countries. In 2022, the firm reported revenue of \$10.1 billion across its core services of property, facilities and project management, leasing, capital markets, and valuation and other services. It also receives numerous industry and business accolades for its award-winning culture and commitment 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and more.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www.cushmanwakefield.com](http://www.cushmanwakefield.com).

Cushman & Wakefield Research에서는 2023년 하반기 서울 주요 3대 권역과 판교권역에 소재한 A급 오피스를 대상으로 임차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업종별, 그리고 외국계와 국내기업으로 분류하여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66개의 오피스를 대상으로 전수 방문조사를 통해 정보를 확인 및 수집했다.

각 오피스 빌딩의 층별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였으며, 업무용으로 사용된 층별 면적의 비율을 도출했다.

비업무용으로 사용된 지하, 옥상 기계실, 주차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면적은 제외하였다.

임차인 업종 분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10차를 기준으로

Cushman & Wakefield Research에서 총 10개의 업종으로 재 분류하여 분석했다.

Cushman & Wakefield 업종 분류 기준

C&W코드	표준산업분류10차	대분류
환경 및 에너지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제조	C	제조업
건설 및 개발	F	건설업
	L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도소매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L6812 제외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95, S9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T	J582, J62, J63	정보통신업
미디어 통신	J, IT 제외	정보통신업
금융	K	금융 및 보험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U	국제 및 외국 기관
협회 및 공공기관	S94	협회 및 단체
	-	공유오피스업